

축구를 사랑한 과학자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또** 축구 물어보시네. 이제는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제
가 연구는 안하고 축구만 하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인호 박사는 다시는 축구 얘기를 안 하겠
다며 손을 내저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 ‘축구광’으로 통하던 그는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축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일반인들에게
까지 유명해졌다. 그가 2000년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기고한 카
를로스 호베르투의 환상의 프리킥 궤적’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축구팬들에게 회자되며 ‘고전’으로 통하고 있다.

‘축구’ 하면 생각나는 또 한명의 과학자가 있다. ‘축구공 위의 수
학자’를 쓴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가 바로 그다. 지난 휴
일날 통화한 강 교수는 “축구 얘기에서 저 빼주세요. 수학자가 매
일 이상한 걸로만 나와요”라며 투덜거렸지만 필자와 전화할 당시
에도 ‘만화에 나타난 한국축구, 일본축구’를 주제로 청탁받은 글을
쓰고 있었다.

아마도 강 교수가 이 글을 읽으면 자신이 아닌 이인호 박사에게
먼저 지면을 할애한 것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강 교수가 다른 분야
도 아니고 축구에서만은 2등하기 싫어한다는 걸 잘 알지만, 이
박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으므로 이 박사를 먼저 소개한다.

이인호 박사 - 물리법칙으로 축구 분석

이인호 박사(39)의 블로그(inccredible.egloos.com)에 들어가서
‘한국축구리뷰’를 훑어보자. 아드보카트호 국내파 베스트 11, G조
간판선수들 득점하던 날 등 축구국가대표팀 소식은 웬만큼 알 수
있다. 중간 중간에는 이 박사가 직접 대표팀을 분석하며 제안하는
글도 있다. 그는 “박주영을 좌우측면으로 보내니까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팀전술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박주영을 가운데로 보내고 미드필드진의 가용조합을 확보하고 보

강하라”고 주장했다. 또 아드보카트 감독이 5월 이후 막판 파워프
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체력은 단기간에 강해지지 않는다.
겨울에 체력보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의 글 중의 백미는 역시 물리법칙으로 축구를 분석한 글
들이다. 브라질 축구국가대표선수인 호베르투 카를루스의 환상 프
리킥 분석, 축구공 이야기(축구공 구조 분석, 축구공의 운동, 약팀
이 강팀을 이길 경우 확률분석, 축구 운동장 크기와 축구선수의 수
등은 가장 인기 있는 글들이다.

이 박사는 “비가 오
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
일 축구를 한다”고 한
다. 1년 365일 중 비 오
는 날이 50일정도 된
다면 약 300일은 축구
공을 차는 셈이다. 그
는 평일에는 점심시간
에 30분씩, 주말에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갖
는다. 그는 한국표준연
구원의 축구팀과 대전
지역 직장인 팀인 ‘드
림SC’의 두 군데서 뛰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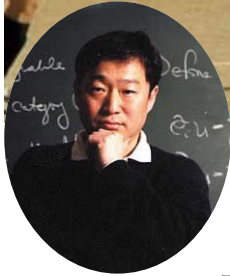
축구 감상은 TV를
선호한다. 축구장에서
는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집



이인호 박사



강석진 교수



에서 TV 앞에 앉아 종이와 연필을 갖다놓고 그림을 그려가며 경기를 분석한다. 최근에는 축구 운동장과 선수들의 수에 대해 분석, 우리 나라 축구팀에는 압박축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내놓았다.

요즘 월드컵을 본다고 사람들이 LCD 혹은 PDP TV를 구입한다는 소식에는 “역시 모니터는 CRT방식(브라운관)이 최고”라고 말했다. LCD에 잔상이 남는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지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전자로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CRT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전문 오락꾼들은 컴퓨터 화면도 액정대신 CRT를 사용한다는 멘트도 덧붙였다.

강석진 교수 - 전문가 수준 축구칼럼 연재

강석진 교수(45)는 스포츠신문에 축구 칼럼을 연재할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자랑한다. 소설가 고원정씨처럼 비축구인이면서도 전문가 수준으로 축구칼럼을 잘 쓴다는 칭찬에 비교를 거부하겠다는 단다. 본인은 직접 축구장에서 사는 축구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축구협회 기획전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의 축구사랑은 ‘축구공 위의 수학자’라는 책을 통해 잘 볼 수 있다. 어릴 적 축구팀에서 활약한 얘기부터 흥명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한국 축구팀에 대한 분석 등 소신을 엿볼 수 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대표축구선수였던 그는 중학교 때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대학 때는 서울대 자연대 축구부 출신이며, 지금은 자연대 축구부 감독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강 교수가 하늘이 내렸다는 서울대 교수직을 버리고 고등과학원

으로 갔다가 1년반 전에 다시 서울대로 돌아온 뉴스는 학계에서 유명하다. 서울대를 떠났던 교수를 다시 받아준 이례적인 처사(?)에 대해 강 교수는 “축구부를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다시 뽑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실에 전자오르간을 갖다놓고 하루에 한 번은 연주한다는 강 교수는 서울대 힙합 동아리 지도교수로 학생들과 힙합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가 글을 잘 쓰는 이유도 따로 있다.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위당 정인보 선생이며, 아버지는 국문학자, 어머니는 한문학자로 어릴 때부터 글 속에 살았던 것이다.

한국과학상, 과기부장관상 수상 등 연구성과도 탁월

축구 얘기를 이만큼 써놓았으니 과학자로서 두 사람도 잠깐 소개해 보자. 강석진 교수는 올해 초 한국과학상을 받아 축구뿐 아니라 연구도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전공은 순수대수학의 한 분야인 ‘표현론’이다. 지난 2002년 쓴 저서가 미국 MIT, 예일대, 위스콘신대의 대학원 교재로 채택됐을 정도로 외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03년 국제 학계의 시선을 모은 독창적 이론인 ‘아핀(affine) 양자군 결정기저와 영 월(Young Wall) 조합론’은 이번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

이인호 박사는 고체물리가 전공이며 정확히 말하면 응집물질이론을 연구한다. 컴퓨터로 물성을 계산해낸다. 탄소나노튜브 성장, 단백질 접힘, 분자동역학 이론 등이 연구분야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ISTI)의 슈퍼컴퓨터경진대회에서 과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인호 박사는 “축구는 약팀이라도 이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경기”라며 “공 하나로 22명이 함께 즐거운 일이 축구밖에 더 있겠냐”고 말했다. 강석진 교수는 “축구를 하든, 수학을 하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며 “축구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아마도 이들 두 과학자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처음엔 “축구 얘기를 안 하겠다”고 강하게 거부하지만 계속 물어보면 또 못이기는 척 축구 얘기를 술술 풀어 놓는다. 과학자가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안다는 시샘어린 시선만 없다면 말이다.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다.